

# “사회 약자들 건강 위해 열심히 펼 것”

## ■ 민영하 상무금호보건지소 방문간호사

### 관내 취약계층 350가구 ‘건강지킴이’ 11년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11년째 제공하고 있는 광주 서구 상무금호보건지소의 민영하 방문간호사(41).

민 간호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구의 ‘건강지킴이’로 명성이 자자하다.

민 간호사를 포함해 상무금호보건지소엔 방문보건팀장을 비롯해 13명의 건강지킴이들이 서구 관내 5,2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 간호사는 관내 취약계층 350세대, 500여명의 건강관리를 책임진다. 주로, 고령의 만성질환자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언어가 통하지 않

는 다문화가정,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을 돌보고 있다.

관리대상자가 많은 만큼 하루 일정이 빠듯하다. 민 간호사는 하루평균 6~7가구 당게는 10여가구를 방문해 복지·건강정보를 안내하고 각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가정방문을 통해 집중 관리군과 정기적 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나눠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책임진다.

집중 관리군은 8주 동안 주 1회 방문하고, 정기적 관리군은 2개월에 1회, 자기역량 지원군은 6개월에 1회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경로당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관내 211개 경로당에는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대한안마협회와 협업을 통해 안마서비스,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11년째 사회약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민 간호사는 “가족과의 불화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어르신들을 보건소 정신건강증진과에 연계, 상담을 받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삶의 의욕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만나볼 때마다 행복해하시더라”며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아직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민 간호사는 “가족과의 불화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어르신들을 보건소 정신건강증진과에 연계, 상담을 받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삶의 의욕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만나볼 때마다 행복해하시더라”며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아직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 장흥 용산면 사랑의 선풍기 전달

장흥군 용산면은 지난 7일 홀로사는 어르신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 15가구를 찾아 기탁금으로 마련한 선풍기를 전달했다. 선물한 선풍기는 레이크종합건설 신촌열 대표가 기탁한 성금으로 마련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 광주성광교회 몽골서 봉사활동

광주성광교회(담임목사 박상규)는 8일 몽골 울란바토르 다르예흐 지역에서 오래된 마을회관 지붕과 외벽을 보수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마을주민들을 초청해 한국음식을 함께 나누는 등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렸다. /박익우 기자



### 시 소방본부, 119소년단 안전체험 여름캠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8일부터 이틀간 전북 임실 119안전체험관에서 ‘2018년 한국119소년단 안전체험 여름방학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조대부속고등학교·학강초등학교 등 119소년단원 208명 등 총 245명이 참가해 ▲소년단 단체 화합 활동 ▲익사사고·급류사고 등 물놀이 안전체험 ▲화재안전 ▲지진·태풍 ▲생활안전

체험 등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영돈 광주시 구조구급과장은 “2007년부터 해마다 여름방학에 119소년단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캠프를 열고 있다”며 “휴가철 물놀이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여수영재교육원, 글로벌 화상 교육 실시 ‘핵 과학’ 등 과학·인문학 프로그램 구성

전라남도여수영재교육원(교육장 김연식)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자연영역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국-호주 글로벌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화상교육은 호주의 자매결연 프로그램인 AKC(Australia-Korea Connect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주 UNE 대학의 썸머스쿨과 연계해 추진됐다.

여수영재교육원은 지난해 화상교육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후 세종영재교육원 등의 국내기관과 양방향 화상교육을 실

시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 기관과 연계한 ‘한국-호주 글로벌 화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주제로는 의학, 액체질소, 그래이트베리어 리프의 해양생물, 핵 과학, 알래스카해안센터, 셰익스피어 등 6가지 과학과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제별로 학생들이 미리 영어로 된 발표 자료를 준비해 수업 시간에 학생들 주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연식 교육장은 “화상교육은 도서벽지가 많은 여수의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 “세계수영대회 등 국제행사 대비 역사 환경개선” 광주도시철도, ‘역사 디자인 자문위원회’ 개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8일 서구 마북동 본사상황실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외지 방문객 증가에 대비, 승객의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 및 역사 환경개선을 위한 ‘역사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디자인 업계전문가 5명이 참석,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광주승정역을 직접 방문해 광주의 관문으로서의 역사 환경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받은 자문을 토대로 역사안내 사인물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환경개선 전반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역사 내 디자인은 승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광주의 문화·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며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 “초·중등 교원 SW교육 역량 강화” 조선대 SW융합교육원, 교원 직무연수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최근 SW융합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즐기는 과학체험, 초·중등 교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18년 초·중등 SW교육 필수화 방침에 따른 초·중등 교원의 소프트웨어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이 다.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이주관하고 조선대 SW융합교육원이 후원해 광주지역 초·중등 교사 30명이 참여했다. /고광민 기자

이날 연수는 최근 코딩교육의 트렌드인 로봇과 프로그래밍 언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오봇봇 코딩 놀이’ 그리고 코딩으로 행동 명령을 제어하고 움직여보는 ‘코드론(codron)’으로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직무연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 사고 증진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 하나금융투자, 광주사랑의열매에 기부금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8일 하나금융투자 광주금융센터에서 기부서비스 적립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 31사단, 6·25 참전용사 자매결연 행사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사단 사령부에서 최근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자매결연행사를 가졌다.

### 목포 출신 문학평론가 황현산씨 별세

문학평론가이자 불문학자인 황현산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3세.

2015년 담도암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았으나, 올해 2월 암이 재발해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사직하고 투병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달 초부터 병세가 악화해 고려대 안암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았다.

고인은 1945년 목포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현대시를 주로 연구하며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했다. 1980년부터 경남대, 강원대 교수를 거쳐 1993년부터 2010년까지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30여년 동안 후학을 양성했다.

팔봉비평문학상, 대산문학상, 아름다운작가상을 받았으며 2007년 미담문학상 심사위원을 맡았다. 그의 이름이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2013년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를 펴내면서다. 신문에 연재한 칼럼들을 모아 낸 이 책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과 철학을 편



반응을 얻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으며,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인 423명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모를 거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암이 재발하면서 두 달여 만에 사직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저서로는 ‘말과 시간의 깊이’, ‘일곱 없는 희망’, ‘말라르메의 시집’ ‘에 대한 주석적 연구’, ‘이상과 귀향, 한국문학의 세영토’ (공저), ‘잘 표현된 불행’, ‘13인의 아해가도로로 질주하오’ (공저) 등이 있다.

빈소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연합뉴스

본사 손님  
▲최관호씨(전남경찰청장)